

배 포 일	2025. 10. 1(수)	매 수	3매
생 산 부 서	통행료시스템처 시스템사업부 부장 문재상, 차장 김종오 (☎ 054-811-4192)		
배 포 부 서	홍보처 언론홍보부 부장 배강민, 차장 김영민 (☎ 054-811-1331)		
배 포 일 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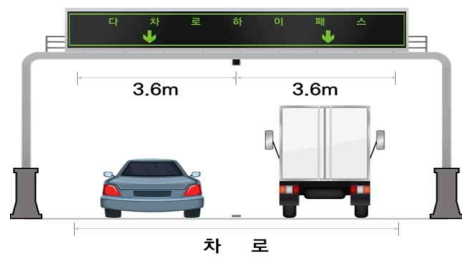
‘2025년 APEC 정상회의’ 성공개최 지원 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

- ▶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에 입·출구부 각각 2차로의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
- ▶ ‘2025년 APEC 정상회의’(10.27~11.1)에 앞서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

□ 한국도로공사(사장 함진규)는 9월 30일(화) 경부고속도로 경주요금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행사를 가졌다.

○ 이날 행사는 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,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, 주낙영 경주시장,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경영부사장 등이 참석했다.

□ 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는 2019년 이후 100번째로 개통되는 다차로 하이패스로, ‘2025년 APEC 정상회의’(10.27~11.1)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추진됐다.

구 분		기존 하이패스	다차로 하이패스
단 면 도			
특징	분 류	차로간 구분시설 존재	차로간 구분시설 제거
	차로폭	좁은 차로폭(3.5m미만)	본선과 동일한 차로폭(3.5m이상)
	제한속도	30km/h	80km/h ^{본선} , 50km/h ^{나들목}
	처리용량	727~980(대/시)	1,247~1,445(대/시)

- 경주요금소에는 입·출구부 각각 2차로의 다차로 하이패스가 설치됐으며 정차 없이 통과할 수 있어 교통처리 능력이 향상되고 요금소 광장부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었다.

- 한국도로공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IC 일대 경관 정비 등 경주를 찾는 세계 각국 인사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-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경영부사장은 “다차로 하이패스 구축과 함께 경주 요금소 주변 정비를 병행하는 등 APEC 기간 내 경주를 찾는 각국 정상과 대표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붙임 : 관련 사진 2부. 끝.





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후 전경



30일(화), 경주요금소 다차로 하이패스 개통 기념행사에서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(왼쪽에서 다섯 번째), 이상재 한국도로공사 경영부사장(왼쪽에서 여섯 번째), 김석기 국회의원(왼쪽에서 일곱 번째), 주낙영 경주시장(왼쪽에서 여덟 번째)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